

여수광양항 ‘표 최고 스마트 복합항만’ 육성

전남도, 2027년까지 3조2600억원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배후단지 확대...물동량 5억t·일자리 1만6000개

전남의 여수광양항이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거듭난다. 전남도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조26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조만간 수립되는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 여수광양항 관련 계획을 반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형선사 이탈 등으로 어려운 여수광양항에 2027년까지 단계적인 항만 기반시설 확충과 배후단지 조성 확대,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총 3조2600억원을 투자할 큰 틀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여수광양항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총 물동량

5억t, 부가가치 2조7000억원, 일자리 1만6000개를 창출할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우선 단기전략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경제위기 극복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과 항만마케팅 강화, 지역 기관 협력체계 운영 등에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전략으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스마트 복합항만’ 구상화를 위해 3조2400억원을 투자해 ‘컨’ 부두 활성화 정책수립과 항만기반시설 확충, 항만 배후단지 확대, ‘컨’ 부두 경쟁력 제고 등 4개 사업에 17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여수광양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중장기전략 중 ‘컨’ 부두 활성화 정책수

립을 위해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 광주 전남연구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대학 등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연구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항만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선 오는 2026년까지 광양항 내부순환도로 2.1km 개설 및 항로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3단계 투기장을 비롯 여천모도수로 항로 준설, 낙포부두 3선석 리뉴얼, 울촌2산단 남사(Naphtha)부두 12만급 1선석 건설 등에 7500억원을 투자, 여수광양항의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게 된다.

항만 배후단지 확대를 위해서도 내년까지 세풍산단 33만㎡를 항만 배후단지로 우선 확대 지정하고, 2025년까지 북측 배후단지 11만㎡를 조기 조성한다. 또 2027년까지 4562억원을 투자해 울촌 3단계투기장 용복합단지 318만㎡를 개발하는 등 항만 배후단지를 늘려 부족 문제를 조속

히 해결할 계획이다.

‘컨’ 부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24열 ‘컨’ 크레인 10기 설치와 함께 자동화 ‘컨’ 터미널 4선석 개발, 세계 최초 황산화물 저감 항만 및 수소 선박 전용 항만 구축 등에 9800억원을 투자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선진 항만을 건설한다. 정부뉴딜 사업과 연계될 자동화 ‘컨’ 터미널 4선석 개발에 오는 2024년까지 5940억원이 투자된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자동화 항만건설 추세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항만에 도입해 화물 하역 자동화 시스템과 자율주행트럭 등을 구축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또 여수광양항을 IMO(국제해사기구) 협약과 대기질법을 준수한 황산화물 저감 항만으로 육성하고, 미래 수소경제 대비 수소선박 전용 선석도 신설해 향후 수소 저장 및 생산기지를 갖춘 전용 항만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백운고가 상부구조물·교각 철거 시작

슬래브 구조물 절단 준비 완료
주야 공사 병행 시민불편 최소화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철거를 시작한 백운고가 철거공사가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고가 상부 슬래브 구조물 절단과 상부 슬래브 인양, 고가도로 시작과 끝 부분 구조물 해체 부지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했으며, 해체된 구조물과 교각 인양을 위한 신호등 위치 조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고가도로 구조물과 스틸박스 인양 및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또 남구청 앞과 양우내안에 아파트 앞 등 2개 차로 점유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새벽시간에만 공사를 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도로 시작과 끝부분 경사구

간 옹벽 철거를 시작해 남구청 앞, 푸른길공원 측, 동아병원 앞, ‘양우내안에’ 앞 1개 차로를 순차적으로 점유하게 되며 11월까지 백운고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백운광장 주변 교차로의 차로 및 신호주기 조정, 주야간 병행시공 등 단계별 교통처리계획을 세워 공사 구간 차로 점유를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에 표지판과 도로노면 유도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안주현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은 “백운교차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백운고가 철거공사를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백운광장 주변 교통정체가 최소화되도록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가고 주야간 공사를 병행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정가

광주 공공기관 지역 고교 졸업자 20% 채용 조례 제정

김나운 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이 앞으로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우선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나운(북구 6)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신규 채용 비율을 5%에서 20%로 높였다.

채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채용 공



고일 전까지 광주시 교육청에 알리도록 했다. 채용계획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산하기관에는 공공기관을 비롯

해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했다. 김나운 의원은 “공공기관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에 젊은 인재가 남아 지역 경제 성장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공동배달 앱 조속히 구축해야”

장연주 의원 임시회서 주장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10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도 민간배달앱의 착취에 가까운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동배달 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는 것이 대세가 됐으나 민간독



점 배달앱의 착취 때문에 배달영업의 매출이 업소의 순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 군산시가 ‘배달의명수’, 인천시 서구가 ‘서로 e를 배달서구’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도 공공배달앱 개발을 마치고 10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면서 “광주시도 하루속히 공공배달앱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 시민 공론화로 결정

시민권익위 전원위 의견수렴

광주 민간공항을 내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방안이 광주시민 공론화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의 이전 합의가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도시재생분과위원회는 10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재검토하자는 시민 제안에 대한 정책과 여부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시민의 뜻을 모은 숙의와 여론조사를 통한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광주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바로 소통 광주’에는 민간 공항의 무안 국제공항 이전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올라왔다. 제안은 3일 만에 50명의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 공식 토론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토론방에서도 4일 만에 160여명이 참여했다.

제안자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를 잠시 중단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군 공항 이전사업비가 5조7000억원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 광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군 공항 문제의 해법을 찾고 민간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 안팎에선 당시 군 공항 이전에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는데도 전남의 협조가 없어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